

이란, 터키와 천연가스 수출 재개에 합의

- 이란과 터키정부는 지난 6월 이후 3개월이 넘도록 중단되었던 천연가스 수출거래 재개를 위한 협상에서 **가격인하 등의 내용을 담은 양해각서에 10월 9일자로 합의**
 - 양국의 에너지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**수출가격과 수출물량을 모두 줄이는 방안**에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는데, 구체적인 합의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음
 - 터키측이 요구한 가격인하와 관련해서는 국제시장에서 천연가스 가격이 고정되어 있지 않고 각각의 거래특성에 맞춰 가격이 결정되므로 **양국이 건별로 합의하여 수출가격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였음**
 - 양국의 에너지장관은 이와 함께, 터키를 경유하여 **이란의 천연가스를 유럽시장에 수출하는 방안** 등 경제협력 강화 방안도 논의하였음

- 이번 협상은 터키정부가 이란産 천연가스의 **품질이 낮다고 주장**하며 6월 24일 이란으로부터의 **가스수입을 중단**한 데 따른 것임
 - 이란 정부는 천연가스의 **품질에 관한 터키정부의 주장을 일축**하고 수입 중단의 이면에는 터키의 악화된 경제상황과 가격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**러시아産 가스수입 제의** 때문이라고 주장
 - 터키정부는 이란産 가스수입 중단에 앞서 **러시아로부터의 가스수입도 가격인하와 수입물량 축소**에 합의하였음

- 이란에서 터키로의 천연가스 수출은 이란 북서지역의 **Tabriz市에서 앙카라**까지 연결된 **파이프라인**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음
 - 동 파이프라인을 통한 계약기간 25년의 가스공급 계약에 의하면 금년중 40억 평방미터의 가스공급을 시작으로 일단 **2007년까지 매년 100억 평방미터의 가스가 공급될 예정**이었음

- 이란-터키 파이프라인을 통한 천연가스 수출계약은 터키의 이슬람계열 보수 정권이었던 **에르바칸(Necmettin Erbakan) 총리*** 정권에서 1996년 8월 체결되었음

- 투르크메니스탄의 對유럽 천연가스 수출도 터키를 경유하므로 두 프로젝트가 중복된다는 이유로 동 수출계약 당시 미국을 비롯한 주변국들이 터키정부를 비난
- * 터키공화국 수립이후 최초의 이슬람계열 보수정권(Welfare Party)으로서 헌법의 세속주의 이념에 충실한 군부의 강한 압력으로 '97년 6월 집권 11개월만에 퇴진
- 2001년 중 이란의 천연가스 생산량은 602억 평방미터로 전세계(2조 4,640억 평방미터) 생산량의 2.5%를 차지하며 매장량은 26조 1,000억 평방미터로 전세계의 16% 정도를 차지하고 있음
- 이란은 러시아에 이어 세계 2번째의 가스매장량을 보유하고 있는데, 이란국영가스회사(NIGC) 주도하에 가스전 탐사작업이 진행중임
- 최대 가스전은 **South Pars**지역으로 12조 5,000억 평방미터의 매장량을 보유하고 있으며, 그 외 주요 가스전으로는 North Pars(매장량 1조4,160억 평방미터), Kangan(8,120억 평방미터), Nar(3,640억 평방미터) 등이 있음

전문연구원 황수영(☎3779-6655)
E-Mail : sooyhwang@koreaexim.go.kr